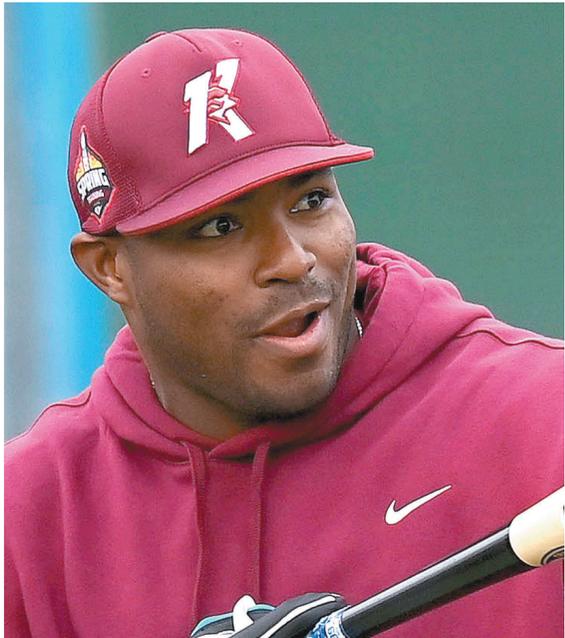




채널A 예능프로그램 '강철부대2'가 방송 2회 만에 시청률과 화제성,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았다. 사진제공 | 채널A

## ‘다저스 깡부’ 류현진-푸이그 ‘꿈같은 재회’

오늘부터 이틀간 한화-키움 연습경기...4년만의 깜짝 만남 성사될듯



‘약동’과 ‘코리안 몬스터’가 미국이 아닌 한국에서 만난다. 키움 야시엘 푸이그(왼쪽)가 4일과 5일 대전한화생명영글스파크에서 열릴 한화과 연습경기 동안 토론토 류현진을 만날 전망이다. 장기화되고 있는 메이저리그 직장폐쇄의 여파로 류현진은 친정팀 한화에서 훈련 중이다. 스포츠동아DB·뉴스스

다저스 시절 덕아웃 특급 케미 자랑 류현진 ML직장폐쇄로 한화서 훈련중 국내무대 첫 실전 앞둔 키움 푸이그 SNS에 “나의 형제여, 빨리 보고싶다” 류현진 “적응만 잘하면 잘할 것” 응원



메이저리그 LA 다저스에서 한술밥을 먹던 시절 절친 ‘케미’를 자랑했던 류현진(왼쪽)과 푸이그. AP뉴스

옛 동료들이 오랜만에 재회한다. 한화 이글스와 키움 히어로즈가 실전감각 점검을 위해 4일과 5일 대전한화생명영글스파크에서 스프링 캠프 연습경기를 치른다. 두 팀의 맞대결만큼이나 크게 관심을 끄는 대목은 단연 전·현직 메이저리거들의 재회다. LA 다저스에서 한술밥을 먹던 시절 특급 ‘케미’를 자랑했던 류현진(35·토론토 블루제이스)과 야시엘 푸이그(32·키움)가 이제는 서로 다른 유니폼을 입고 미국이 아닌 한국에서 만난다. 류현진은 2013시즌을 앞두고 포스팅 시스템(비공개 경쟁입찰)을 통해 한화를 떠나 다저스에 입단했다. 2019시즌까지 7년간 선발투수로 활약하며 다저스의 내셔널리그 서부지구 우승에 기여하는 한편 스스로는 사이영상 후보로 등극하는 등 걸출한 업적을 쌓았다.

푸이그 역시 류현진처럼 2013시즌을 앞두고 다저스 유니폼을 입었다. 쿠바 출신인 그는 국제야마추어계약을 통해 메이저리그에 발을 디뎠다. 시원한 장타력과 함께 야생마처럼 그라운드를 누비는 공격적 주루 플레이로 많은 야구팬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함께한 시간이 짧지 않았던 둘은 두터운 친분을 자랑한다. 다저스 시절 종종 덕아웃에서 함께 장난을 치며 특급 케미를 과시하곤 했다. 그러나 2018시즌 후

푸이그가 신시내티 레즈로 이적하면서 서로 다른 유니폼을 입게 됐다. 류현진 역시 1년 뒤 현 소속팀 토론토로 옮겨갔다.

둘은 푸이그가 다저스를 떠난 뒤 4년 만에 실로 우연히 재회하게 됐다. 메이저리그 직장폐쇄의 장기화로 류현진은 현재 친정팀 한화에서 몸을 만들고 있다. 푸이그는 지난해 12월 키움과 계약하고 KBO리그 데뷔를 준비 중인데, 한화와 키움의 연습경기를 펼침에 따라 자연스레 둘의 만남도 성사됐다.

류현진은 한화 캠프에서 취재진을 만나 푸이그에 대해 “대단한 도전을 한다고 본다. 적응만 잘 하면 좋은 성적을 낼 것”이라며 희망적 전망을 내놓았다. 푸이그는 아예 개인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나의 형제여, 나는 지금 당신의 나라에 있다. 곧 만나게 되길 빈다. 보고 싶다”는 진심 가득한 메시지를 남긴 바 있다.

한화와 키움 양 구단 관계자들은 3일 “두 선수가 만나는 자리를 따로 만들진 않을 것”이라면서도 “경기장을 오고가며 자연스럽게 만날 순 있다”고 밝혔다. 여러 변수와 어려움 속에서도 끝내 성사된 전·현직 메이저리그 스타들의 만남이다. 둘 모두 다저스 시절만큼이나 환하게 서로를 반길 것으로 보인다.

정은성 기자 award@donga.com

## ‘강철부대 시즌2’ 벌써 대박 예감

- 1 단 2회만에 비드라마 TV화제성 부문 2위
- 2 30대 여성 시청률 2.96%, 동시간대 최고
- 3 김승민·최용준·장태풍 수려한 외모로 인기
- 4 유튜브 채널선 전략분석·뒷얘기 화제몰이



채널A·SKY 예능프로그램 ‘강철부대’가 시즌2 역시 대박을 터뜨릴 조짐이다. 지난달 22일 방송을 시작한 2회 만에 시청률과 화제성 지표에서 두각을 드러내고 있다. 지난해 6월 시즌1로 신드롬급 인기를 끈 ‘강철부대’는 시즌2에서 개성을 더욱 확실하게 각인시키며 파란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제작진은 유튜브 공식 채널을 통해서도 다양한 관련 콘텐츠를 쏟아내며 화제몰이를 이어가겠다는 각오다.

### ●최고 시청률 경신 기대

첫 방송에서 시청률 4%대(이하 닐슨코리아)를 돌파한 시즌2는 1일 4.4%를 기록했다. 분당 최고 시청률은 5.8%. 시즌1의 1회(2.9%)보다 2배 가까이 높은 시청률로 시작한 셈이다. 방송가 안팎에서는 이전 시즌의 최고 시청률(9회·6.8%)도 일찌감치 뛰어넘을 것이라 전망이 나온다.

특히 군대 문화가 낯선 젊은 여성들을 고정 시청자 층으로 흡수해 더욱 눈길을 끈다.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강철부대2’의 30대 여성 시청률(수도권 기준)은 2.96%로 집계됐다. 동 시간대 SBS ‘틀십포맨’(1.73%), JTBC ‘마녀체력농구부’(0.77%)보다 높다. 화제성 조사회사 굿데이이터코퍼레이션의 2월 4주차(21~27일) 비드라마 TV 화제성 부문에서도 2위를 차지했다.

채널A 관계자는 3일 “군 복무 경험 유무와 상관없이 다양한 시청자가 관심을 드러내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힘입어 각종 SNS 플랫폼에서는 국군정보사령부특임대(HID) 김승민, 육군특수전사령부(특전사) 최용준·장태풍 등이 연예인 못지않은 화려한 외모와 웅장한 체격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 ●유튜브 콘텐츠도 인기

화제몰이는 온라인에서 먼저 시작됐다. 프로그램의 공식 채널에서 공개 중인 ‘박갈량의 리마스터’ 영상이 특히 주목 받고 있다. 시즌1의 특전사 팀장인 가수 박군(박준우)이 해난구조전대(SSU) 정해철, 제707특수임무단 이진봉 등이 전 출연자들과 시즌2 방송에 대해 이야기하는 토크쇼다.

이들은 풍부한 군 관련 지식과 시즌1 촬영 경험담을 토대로 시즌2 참가자들의 전략을 분석한다. 동시에 실시간 댓글창을 통해 시청자의 궁금증도 풀어준다. 재치 있는 입담까지 갖춰 본 방송에 이어 곧바로 ‘리마스터’ 영상을 챙겨보는 시청자가 많다. 실제로 최대 70만 뷰, 1600개가 넘는 댓글을 모으는 등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제작진은 참가자들의 쉬는 시간 등 화면 뒤 장면과 에피소드도 공개하고 있다. 연출자 이원우 PD는 “본 방송에 담지 못한 영상을 유튜브 계정으로 꾸준히 공개해 시청자가 다양한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암보험 하나 있는데 뇌출혈도 걱정되고”  
뇌출혈 10명 중 8명은 50대 이상  
2018건강보험통계연보, 건강보험심사평가원(2019)

“암 치료비는 나오지만 생활비가 부족하고”  
암 진단 후 실제 또는 휴직 46.8%  
2013 국립암센터(국가암원격의료비 지원 사업 만족도 조사결과)

“시망원인 2위 질병은 대비조차 안 했고”  
대한민국 시망원인 2위 심장질환  
2017 사망원인통계, 통계청(2018)

## 내 보험! 보장빈틈 걱정없이!

꼭 필요한 보장이 없어서 걱정하고 싶다면, 이제 걱정 마세요. 큰 병이 진단되면, 특약으로 생활비까지 걱정없이! 원하는 보장만 골라 보험 빈틈을 꼭꼭 채워드립니다.

**가입고객 전원 <AIA 헬스케어 서비스> 제공**  
※ 상세 내용 별도 안내장 참고

**백세시대 (강신형) 꼭해나 건강보험**

노출혈 진단비

금상심근경색 진단비

암생활비 (특약)

**간편심사 통과 시 가입 가능**

암에 걸린 적이 있어도 (최근 5년 이내 제외)

나이가 많아도 (40~75세)

자병이 있어도

수술 병력이 있어도

건강보험 꼭해나 들어야 한다면 전화주세요  
**080-860-6700**

HEALTHIER. LONGER. BETTER LIVES

가입

• 가입 후 첫날부터 보장(가입 2년 이내 진단 시 50% 보장, 진단금은 최초 1회만) 단, 암 특약은 가입 후 91일부터(소액암은 첫날부터) • 10년 만기 갱신형으로 최대 100세까지 보장(갱신 시 보험료 인상 될 수 있음) • 만기 환급금이 없는 순수보장형입니다. • 이 보험계약은 예금보통예금에 따라 예금보통예금이 보호되며,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통예금 금융상품의 해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통예금에 기탁된 금액을 한하여 '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 기존계약 해지 후 신계약 체결 시 인수 거절, 보험료 인상 또는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이 상품은 일반보험 가입이 어려운 유병력자 및 고연령자 대상 상품입니다. 의사의 건강진단이나 일반계약 심사를 받을 경우 더 저렴한 일반보험 가입 가능함 • 당시의 인수 기준에 따라 가입이 어려운 경우도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전문 상담원에게 문의해 주십시오 • 상품설명서 및 약관 확인 바랍니다

AIA생명보험 주식회사

이츠2in1 와이드그릴 상담원로서, 무료상담!

- 접수 후 7일 이내, 최소 500 이상 상담 시(개인정보 제외)
- 백승은 상담원료 후 약 6주 소요(인기 1회 한정)
- (상담사 전용) 무료 견학, 무료 시점 견학
- 본 상품은 소비자가 기준 2만원을 초과하지 않음
- 다른 상품으로 대체 발송될 수 있음